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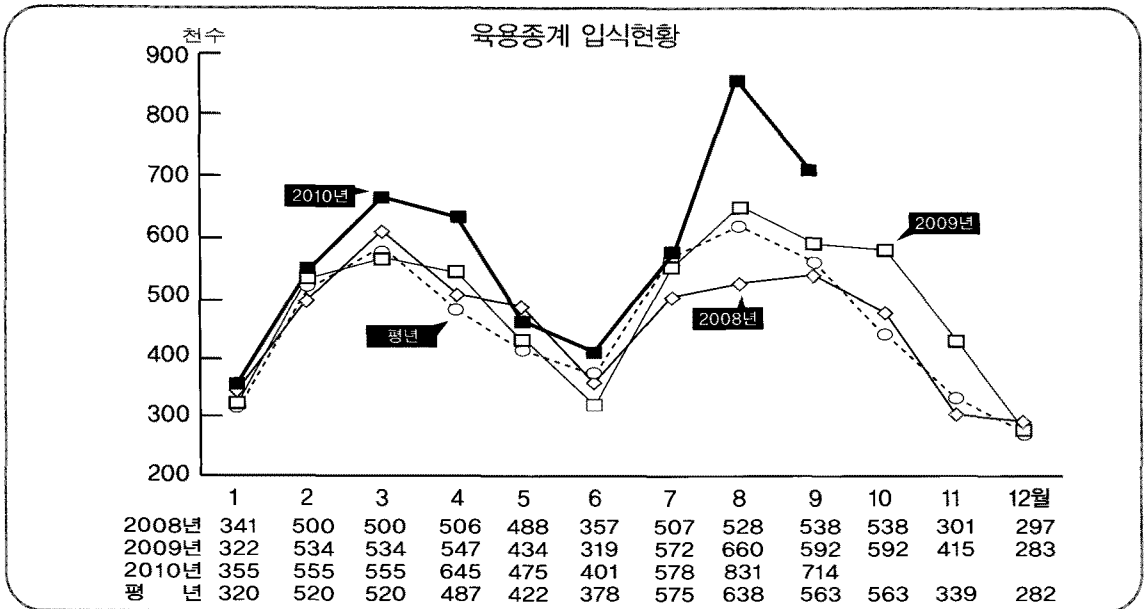


11월 닭고기 수급 전망

1. 육용종계 입식현황

■ 9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20.5% 증가

- 9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71만3천6백수로 전년동기(59만2천1백수) 대비 20.5% 증가했으며, 이는 평년수준(56만3천수) 대비 26.7% 증가한 수준이다(8월 83만1천4백수 대비 14.2% 감소).
- 9월의 종계 입식수수가 역시 지난달에 이어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. 올해 9월까지의 누계 역시 5백24만2천수로 전년동기간 누계(4백57만3천수) 대비 14.6% 증가했다. 이는 원종계 증가로 인해 종계 생산잠재력이 높은 가운데 여름철 혹서피해로 종계계군의 생산성이 떨어져 병아리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 종계 입식수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 종계 D/B상의 9월 육용종계 사육수수는 6백86만1천수로 전년동월(6백2만7천수) 대비 13.8% 증가했다.



*주 : 평년은 2005~2009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*자료 : 대한양계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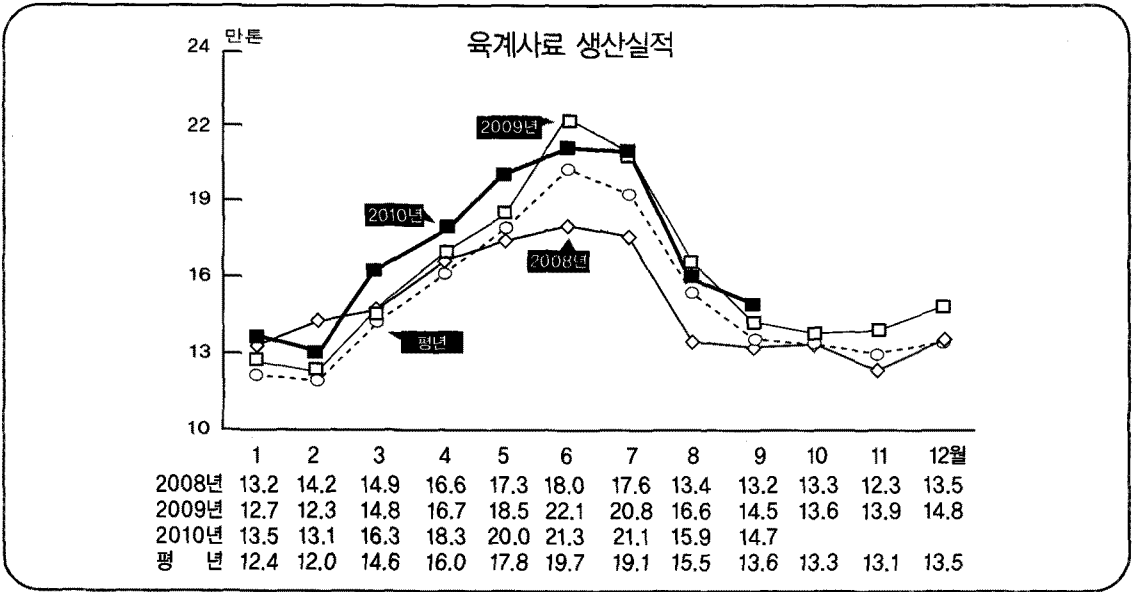
2. 배합사료 생산동향

■ 11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

- 11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9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1,839톤으로 전년동월(21,345톤) 대비 2.3% 증가했으며, 전월(20,799톤)에 비해서는 5.0% 증가했다. 늦더위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사료소비량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.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예상했던 잠재력 수준보다 낮아 생산성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.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증가하겠으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한편 9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146,944톤으로 전년동월(145,322톤) 대비 1.1% 증가했으며, 전월(159,230톤) 대비해서는 7.7% 감소했다. 11월 육계사육마리수는 전년동월 대비 1.2% 증가한 5,550만수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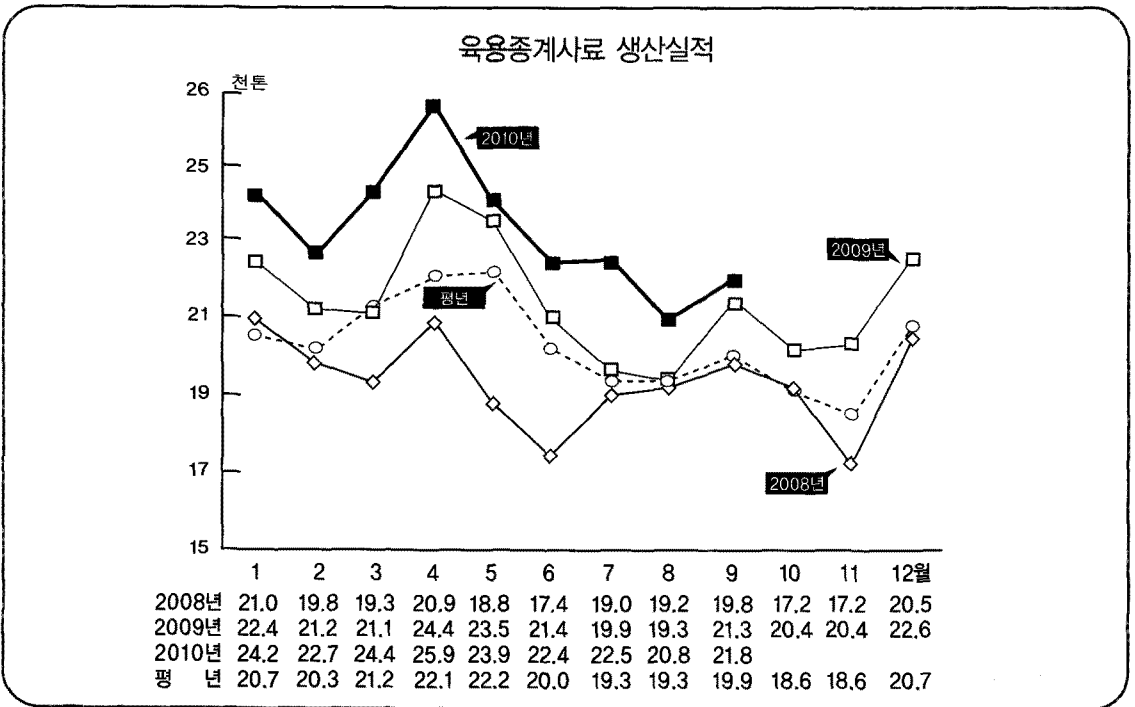


11월 닭고기 수급 전망



※주 : 평년은 2005~2009년의 생산량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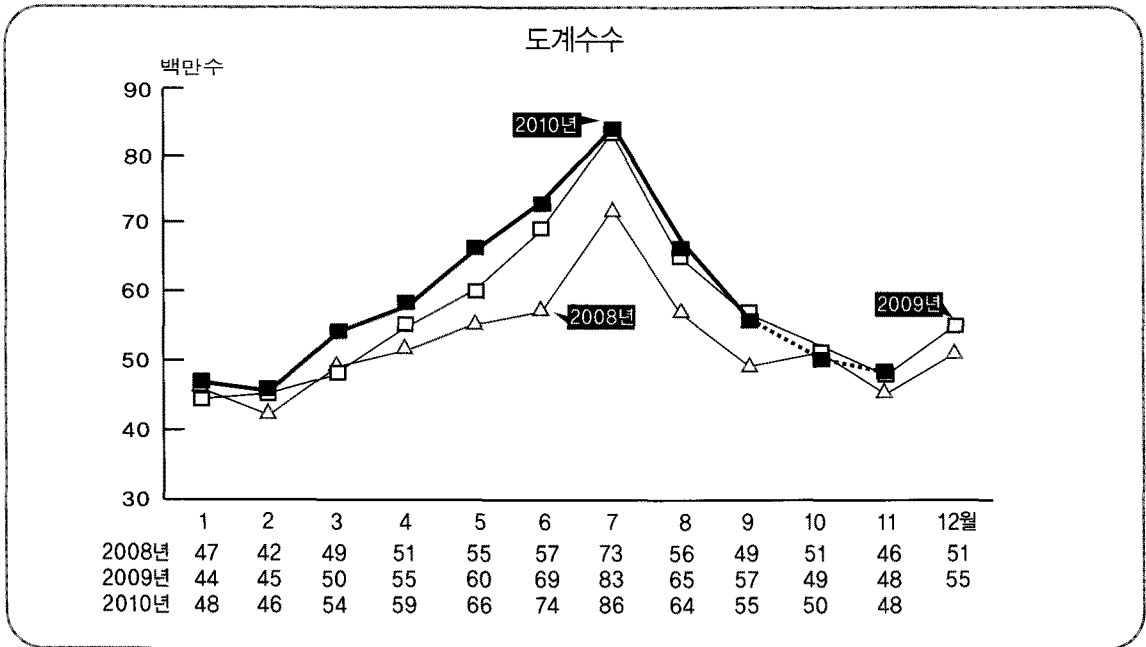
※주 : 평년은 2005~2009년의 생산량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

3. 도계수수

■ 11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

- 9월의 도계수수는 5천5백18만수로 전년동월(5천7백41만수) 보다 3.9% 감소했으며 전월(6천4백34만수) 대비 10.8% 감소했다.
- 11월에는 잠재력 및 육계 사육수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나 당초 예상보다는 증가폭이 크지 않아 도계수수는 전년(4천7백92만수)보다 1.1% 증가한 4천8백45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.


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(2010년 10~11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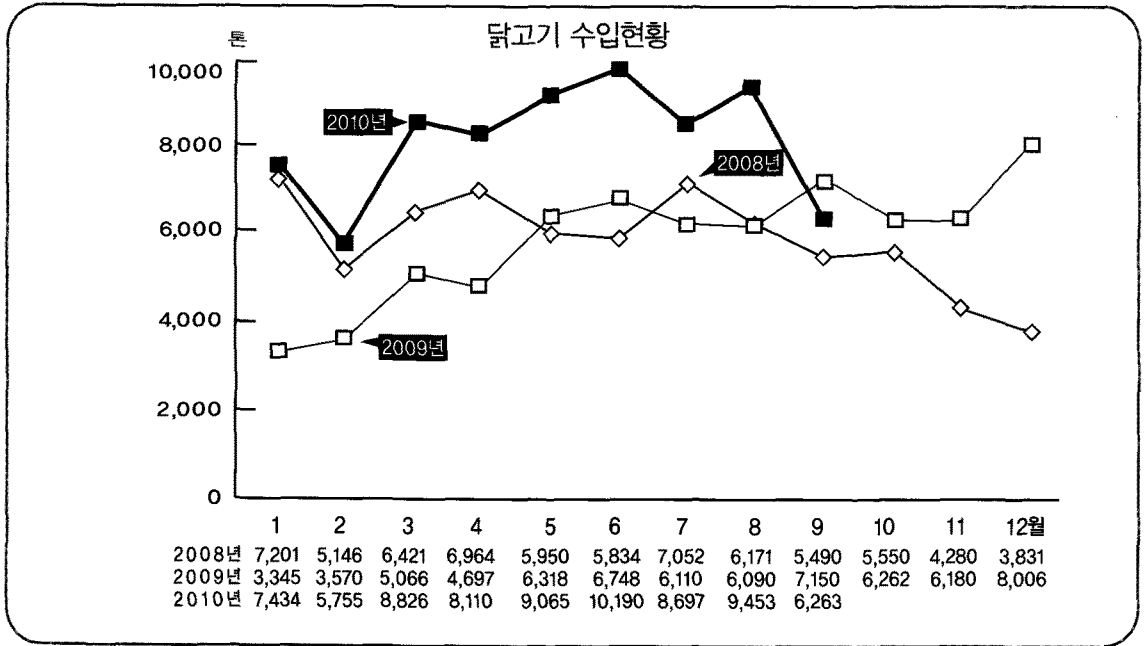
4. 닭고기 수입현황

■ 10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증가 예상

- 9월에는 6,263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(7,250톤) 대비 13.6% 감소했으며, 전월(9,453톤) 대비해서도 33.7% 감소했다. 검역기준 수입량은 10,212톤으로 전년동기(7,775톤) 대비 31.3% 증가했으며, 전월(12,231톤) 대비해서는 16.5% 감소했다.
- 올해 9월까지의 수입누계가 검역기준으로 7만7천톤으로 지난해 전체 수입량(5만8천톤)을 넘었으며, 동기간 누계대비로는 83%가 증가했다. 수입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산 가격의 인상이며, 다음으로는 수입업체의 증가와 환율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. 당분간 수입량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.



11월 닭고기 수급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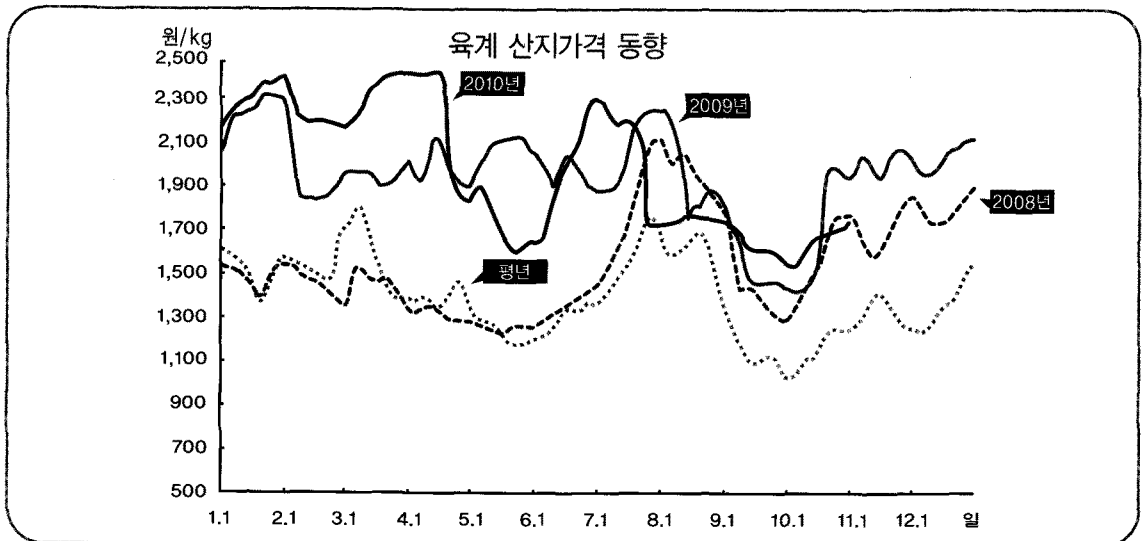


※자료 : 농수산물무역정보

5. 가격동향

■ 11월 육계산지가격 평균 1,600~1,800원 전망

• 10월에는 초순에 명절이후 소비하락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반면, 중순 이후



※주 : 평년은 2005~2009년의 가격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협, 축산물 가격정보(5일 이동평균가격)

소비가 크게 감소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. 전반적인 소비침체이지만 저병원성 시 발생 소식도 소비감소에 일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, 10월(1~28일) 평균 산지시세는 1,639원을 나타냈다(전년 10월 1,679원보다 2.4% 하락, 평년가격 1,207원보다는 35.8% 상승, 전월 1,637원 대비 0.1% 상승).

- 11월의 경우 수입물량 증가, 도계마리수 증가, 비축량 증가 등 공급량은 8.8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, 소비가 저조한 상황에서 별다른 소비증가요인이 없어 11월의 육계 산지가격은 전월과 비슷하나 전년보다는 하락한 1,600~1,8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(전년 11월 가격은 1,994원, 평년가격은 1,384원).


6. 수급자료

〈육계 및 삼계 입식·비축현황〉

(단위 : 천수)

기간	육계						삼계					
	입식			비축			입식			비축		
	2009년	2010년	전년대비	2009년	2010년	전년대비	2009년	2010년	전년대비	2009년	2010년	전년대비
9. 13~9. 19	6,691	7,857	117.4%	2,161	3,668	169.7%	1,320	1,430	108.3%	1,415	465	32.9%
9. 20~9. 26	6,620	7,430	112.2%	2,397	3,737	155.9%	1,240	1,335	107.7%	1,414	479	33.9%
9. 27~10. 3	6,578	7,727	117.5%	2,403	3,770	156.9%	1,350	1,464	108.4%	1,420	479	33.7%
10. 4~10. 10	6,971	7,746	111.1%	2,314	3,698	159.8%	1,287	1,470	114.2%	1,458	471	32.3%
10. 11~10. 17	6,923	7,778	112.4%	2,270	3,682	162.2%	1,244	1,430	115.0%	1,460	510	34.9%

7. 결론

- 11월에는 종계 사육수수 증가 및 생산성 회복에 따라 병아리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입량도 증가하여 전체 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나 광저우 아시안게임 외에 별다른 소비증가 요인이 없어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,600원~1,8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다만, 종계의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공급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또는 아시안게임에 의한 소비증가가 예상보다 클 경우 시세는 전망치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. 하지만 현재 소비경향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김장철에도 보통 소비가 저조한 경우가 많아 소비가 계속 저조할 경우에는 전망치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. 

• 시세변동요인

구분	생산(공급) 측면	소비(수요) 측면
인상요인	- 초순까지 생산성이 좋지 않아 공급량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 - 냉동비축량 평년 대비 낮은 수준	-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소비증가 기대 - 원산지표시 제도 확대 시행으로 국내산 수요 증가 기대
하락요인	- 종계 및 육계수수 증가로 생산량 증가 - 닭고기 수입 급증으로 공급량 증가	- 소비는 10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